

연중 제 23주일

제 1독서 : 이사 35, 4-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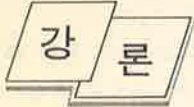
제 2독서 : 야고 2, 1-5

복 음 : 마르 7, 31-37

순정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야고 2, 1)



에 파 타



현유복 신부 / 용머리 천주교회

“까마귀 겁다하고 백로야 웃지마라. 걸이 검은 들 속까지 검은소나, 걸 회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백로는 까마귀의 까만 색만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다. 흡사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윗자리를 권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천한 대접으로 차별 대우를 한 처사(야고버 2, 1-4)와 같은 얘기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사람들은 우선 겉부터 바라보고 사물을 인식한다. 거의 대부분이 겉테기의 관찰과 접촉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미적, 형상적, 윤리적 평가를 내린다. 자신의 편협한 사고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단정해 버리기 일쑤이며 일부가 전체인 양 매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은 그 내면의 세계가 더욱 크고 넓다는 사실을, 드러난 겉질보다 숨겨진 아름다움과 감춰진 진리가 더욱 중요하고 값진 것임을 체휼하고 알면서도 수박 겉핥는 식으로 간과하는 잘못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의 품안에 살면서도 기뻐



할 줄을 모르고, 한숨과 눈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에게 자비심을 갖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지를 못하는(이사 6, 9-10) 장애인일 뿐이다. 남루한 옷을 걸친 예수님이 또 다시 강림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여도, 천둥소리 보다 더 큰 하늘의 우뢰같은 소리가 내리신다 하여도 그분을 알아 뵈는 영혼의 눈과 귀가 없으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분의 한없는 자비 앞에 내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분의 넘치는 사랑 앞에 조그마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주님의 자상스런 손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어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와 고통과 절망 속에 묻혔던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보물처럼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며 무엇이 겉테기이고 알맹이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현자가 될 수 있다.

“에파타”.

양심은 자유로왔네

한상감(바로로)

*** 콩 한 가마에 6백명**

저 지난 주에 어느 텔레비전은 르완다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 온 ‘이웃 사랑회’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다. 잠깐 동안의 방영이었지만 보는 이들의 마음에 많은 느낌을 주었다. 그동안 르완다의 참상에 대해서는 언론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그곳의 정황을 어렵듯이 짐작이나 하던 차에 구체적 한 토막의 이야기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아프리카 한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르완다에서는 하루에 천여명씩이나 콜레라와 이질, 탈수(脫水)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고 한다. 해방되던 해, 우리나라에도 호열자라고 부르는 콜레라가 만연했다. 우리 식구들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네살박이였으니 르완다 사정이 낫설지만은 않다.

이토록 어려움이 심한 르완다에서는 단돈 2만원이면 콩을 한 가마 살 수 있고, 그 콩 한 가마로 음식을 만들면 어린아이들 6백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돈 2만원을 가지면 세 사람이 보신탕 한 그릇 씩도 먹을 수가 없다. 짜장면을 먹기로 한다면야 열명은 더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6백명에 비할 것인가.

*** 선배님, 저 찢자 사 주세요**

“선배님, 저 찢자 사 주세요.” 이 말은 요즈음에 방영되는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의 한 토막이다.

사실 이 말은 오래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즐겨하는 말이기도 하다. 요즈음 아이들은 찢자를 참 좋아한다. 어른들 입맛으로야 얼큰한 고추전 한 장이 더 나으련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도 된장찌개나 김치전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한 세대가 지난 뒤에 된장찌개나 김치전 타령을 하다가는 눈치깨나 먹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문제는 들어서 찢어 먹으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는 찢자 한 장에 임금 2만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이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보다도 더한 것도 많다. 그래도 르완다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마음이 쓰인다. 찢자 한 장이면 그곳 어린아이들 6백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니 말이다. 날마다 이 땅에서 버려지는 음식 찢끼를 생각하다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

*** 무덤고도 긴 여름**

지난 여름은 50여년만에 처음이라는 찢는 듯한 무더위에다가 얼어붙으려는 정국 때문에 참으로 유난스러웠다. 아스팔트를 녹여대며 밤잠을 설치게 한 더위는 참으로 대단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주사파에 대한 논쟁과 시비는 더 했다. 하루 살기에 바쁜 서민들의 입장으로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로는 디도에게 보낸 사목편지에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행동의 본보기가 되고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진지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며 남한테 책잡힐 것이 없는 건전한 말로 가르치시오”(디도 2,6-7)라고 쓰고 있다.

순교자의 성월인 이 9월에,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도 부끄러움은 없는지? 마침 우리 교회에서도 르완다를 돕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절박하지 않은 우리의 처지라서 그런지, 내것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나는 투의 흥청망청하는 비틀거림이 너무나 자주 눈에 뜨인다. 내(본당) 앞가림도 어려운 처지에 어떻게 거기까지 살피느냐고 하는 소리고 들리는 듯 싶다. 그러나 40여년 전 6.25의 참화로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나눔을 주었던 형제들(하느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젊주리는 이들을 못본 체 하는 당신의 양심은 진정 자유로운가!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순교의 삶



사랑의 씨튼 수녀회
홍순향(가밀라) 수녀 / 나바위 피정위 집

이 글을 부탁받은 때는, 몇십년 만에 찾아왔던 7월 말 무더운 여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 때였다. “따르릉~” “네, 나바위 피정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홍보국에 있는 수녀인데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수녀님!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하하...)” “그런데 수녀님! 부탁 하나 할려구요. 글 하나 부탁해요. 나바위 성지에서 느꼈던 ‘순교의 삶’에 대해서요.” “네? !~” “수녀님! 왜 말이 없으세요? !~” “네, 수녀님! 지금은 식은땀(?)마저 흐르는데요? !~(하하하~)” “그래, 이것도 작게는 ‘나’를 포기하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 어렵지만 응답하며,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처음 나바위 성지에 파견 나왔을 때 지금은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신부님께서 나에게 주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이곳은 성지이니,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부탁하시던 말씀이, 앞으로의 나의 삶이 이곳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일러 주신 것 같다. ‘거룩한 삶’ ‘순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순교의 삶은 바로 하느님을 위해 송두리채 자신을 바치는 사랑. 죽음 앞에서 진리를 지키며, 굴하지 않고 인내와 용기로 죽는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행동이리라. 어느 날 진복팔단을 목상하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오 5, 10)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주님처럼 살려다가, 주님의 정신 대로 살려다가, 하느님의 뜻 대로 살려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다가,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데도 불구

하고 오히려 행복하기까지 하단다. 그러면서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 천상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박해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따를수록 사랑받아야 하는데, 얻어지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고, 십자가를 질 경우가 있다. 과연 나는 고통을 받으면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삶 안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죽는 것’이 아닐까...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작년 11월 첫째 주일이었을까? 서울 묵동 성당에서 1,000명이나 되는 신자 분들이 이곳 나바위 성지에서 순례와 더불어 야외미사를 드리기로 했던 때였다. 날씨는 추워지고, 며칠 전부터 가랑비가 내려 주일에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리라는 기상 일기예보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주일 아침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야외미사 준비했던 것을 다시 성당으로 제구를 옮기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의 주관 하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선의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움의 기도를 드렸다. 미사 후에 “점심식사는 피정의 집 식당과, 추운 날씨임으로 방을 따뜻하게 해 놓았으니 편안하게 식사하시라”는 말과 더불어 성지안내를 마쳤다. 나바위 성지로 향하면서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야외에서의 미사와 식사. 이 모두가 걱정되었던 보좌신부님은 따뜻한 방의 장소 제공과 베풀 친절이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어느새 따뜻하게 마련된 방안에서 훈훈하게 녹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그 열기가 내게도 전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이 몸. 당신 뜻 대로 쓰이게 하소서.” 이 말을 외치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피 흘리시며 쓰러지셨다.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는 억압받지 않고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미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알맞는 삶을 주신 게 아닐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그 순간까지 이웃에게 희생과 봉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함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이 몸. 당신 뜻 대로 쓰이게 하소서.”



순교자 성월을 맞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순교자들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 이 시대의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 5월9일 치명자산 성당 축성식 및 순교자 현양대회 때 말씀하셨던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의 말씀을 소개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유서 깊은 치명자산에 성전을 짓고, 주님께 봉헌하는 미사전례를 봉헌하게 되었음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모셔진 호남의 첫 사도 순교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동정 부부 이 루갈다와 유 요한 내외 분께 더 큰 흠모를 드리며 전주교구 주교님을 비롯한 교구민 모두에게도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치명자산은 이곳 전주교구 교우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뜻 깊은 순례지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이곳으로 순례 오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 특히 동정 부부, 그 중에서도 이 루갈다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며, 가장 용감한 믿음과 사랑의 모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 루갈다를 비롯한 순교자들을 모신 이 자리에 성전을 짓고 봉헌하게 된 것은 전주교구 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의 경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전 봉헌으로 이제 더 많은 신자들이 이곳을 순례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모셔진 순교자들이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 깊이 묵상하며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모신 순교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순교 선열들을 참으로 어떤 신앙을 사셨습니까? 그분들은 무엇을 믿었기에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명예, 지위는 물론이요 목숨까지 바치셨습니까? 특히 동정 부부 이 루갈다와 유 요한 내외분은 어떤 신앙을 가졌었기에 부부로 맺어졌는데도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동정을 지켰습니까?

이 루갈다 님은 한번 모신 성체께 대한 공경심에서



평생을 깨끗한 몸으로 살 것을 결심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살얼음을 밟는 듯하고,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선 듯한” 고비를 이겨내야 했었다고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이 무엇이기에 이분들은 이처럼 박해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신앙에 충실하였습니까? 거기다 더하여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고행의 길을 가셨습니까? 이분들의 삶은 현재적 시각에서 보면 오늘 제1독서의 말씀 대로, 어리석은 것이요, 죽음이요, 재앙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지혜서의 말씀 대로 평화와, 불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느님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한 분이시고 거룩하시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은 물론이요,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요,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결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없어서는 안될 분일 뿐 아니라, 이 하느님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하느님을 얻으면 비록 세상 모든 것, 부귀영화는 물론이요 육신 생명까지 다 잃는다 해도 모든 것을 얻

나리 아동미술학원

유치부·국교부

송미란(도미니)

☎ (0673)43-1886

무지개 광고

간판, 현수막, 상패, 기념품

김창식(스테파노)

☎ (0652)252-0207
FAX (0652)252-0208

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삼재(베네딕도)
☎ 75-0550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แกน,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고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참된 믿음의 삶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에게 하느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고, 참으로 모든 선과, 모든 생명, 모든 행복,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은 이 하느님을 한번 알고 믿었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믿음을 위해 바칠 수 있었습니다.

뿐더러 이분들이 믿는 하느님은 참으로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까지 내어 주신 분이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외아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잘 말하듯이 하느님의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듯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우리 순교 선열들이 믿는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이분들을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 그대로 환난도, 박해도, 굶주림이나 헐벗음도, 죽음도, 생명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들을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교 선열들을 흠모하고 본받을 때에는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고 본받아야 할 것

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순교 선열들은 철학적인 하느님, 추상적이지요 관념적인 하느님, 공상의 하느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원천이시면서, 죄 많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 절대적이지요 조건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 사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우리도 이 하느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대신졌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너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쳤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라. 서로 서로 참고, 서로 받아 주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이지요 조건없는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십이 (1097) 김병오



조촌동 성당 기공식

- 9월12일(월) 오후 3 : 00
- 주례 : 이병호 주교
- 주임 : 김진석 신부
- ☎ (0654) 42-7191

신축기금마련 바자회

- 때 : 94.9.9(금)~12(월)
- 장소 : 성전 신축 부지 (동군산 전화국 옆)

“와서 드십시오”

용머리 바자회

- 때 : 9월9일~12일
- 장소 : 성당 뜰
- ☎ : 87-0441

주부 국악교실 모집

- 민요장고, 판소리교법, 설장고, 가야장단
- 접수기간 : 9월25일까지
- 개강 : 9월 30일
- 수강료 : 3개월 45,000원
- 장소 : 사회교육센터(동국교내)
- ☎(0652)77-1941, 87-5906

조립식 건축 · 한국 건설

-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 김 해 선(레미지오)
- ☎ (0652) 75-0161
- FAX (0652) 71-6301
- 휴대폰 011-659-8355

묵상기도 모임

- 묵상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
- 청년 : 매월 1·3째(수) 오후 8시
- 주부 : 매월 1·3째(수) 오후 2시
- 곳 : 전주 서신동 성당
- 문의 : (0652) 74-9262
- 전교 가르멜 수녀회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조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 각 분당 개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 (주문접수중 : 11월20일마감, 12월배달)
- 문의 : 순창성당영농조합
- ☎(0674)53-8040, 52-1004

뿌리를 찾아서 46

연지동 성당

— 생명운동과 창조질서 되찾기 운동에 힘쓰는 공동체 —

노령산맥 끝자락 동학 농민운동의 발상지인 샘골 정주시 한복판에 자리한 연지동 본당은 정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늘고 교세 또한 빠르게 성장되어 제2본당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배경에서 태동하였다.

1982년 당시 정읍본당(현 시기동본당) 박종근(안드레아) 신부 재임시 교구의 지원으로 부지를 매입, 이듬해 2월 성전 신축 기공식을 갖고 약 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연건평 290평의 성전을 완공하여 1985년 1월에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박정일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그 해 2월 22일 초대 이종원(토마스) 신부가 부임하여 사도회를 조직 전신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당 일에 아낌없는 봉사와 정성을 다해 산적

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1986년 4월 살레시오수녀회 본원이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교육의 전문 수도회로서 왕성한 활동과 계획적인 지도로 청소년들의 신앙적 발전이 크게 돋보이고 있다.

제 2대 김치삼(스테파노) 신부는 이제 막 기초가 잡힌 본당의 내실화와 증흥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현재 제 3대 이수현(보나벤투라) 신부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신앙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활성화를 이룬다는 사목방침 아래 피정, 연수, 사순절 특강 등 끊임없는 교육과 선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재권(요셉) 성인을 주보로 모신 연지동 본당은 30~40대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활발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사랑 나눔의 헌금을 실



시하여 불우이웃돕기, 교구 내 불우 시설 및 양심수 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사목회를 중심으로 11개의 신심단체와 22개의 구역, 3개 공소, 레지오 마리에 1개 꾸리아와 21개의 프레스비디움이 본당 사목과 지역 복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목회에 '환경 체육분과'를 신설하여 생명운동과 창조질서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본당은 1995년 1월 23일로 본당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본당 10년사' 편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명상의 자리

생명이신 주님

저의 젊음을 한껏 자랑하려고
뜨거운 7월의 태양 아래
목을 꼳꼳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제 정수리에 내리꽃힐 때도 저는
저의 강인함을 자랑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가슴 가득 열매를 품고 보니
가느다란 미풍에도 몸을 움츠리고
후드득거리는 빗방울에도 놀라는



연약한 어미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품고 보니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가꾸시는 당신이
저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앞에,
세상 모든 피조물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 티 생 수

김 일 수(요셉)
소 화 숙(수산나)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건강상담환영 성신당 한약방

이 흥 재(요셉)
전주우아동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이명복 박사의
시상·팔상 체질 감별
(이제 전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디아)
중앙동 성원오피스텔 508호
☎ (0652)231-6427~9
황명건감회

교구소식

❖ 축! 건진

- 때 : 9월10일(토) 오후3시
- 곳 : 송천동 성당

- 때 : 9월11일(일) 오전10시30분
- 곳 : 원평 성당

❖ 교리교사 피정(2차)

- 때 : 9월10일~11일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에·신 성지순례

- 때 : 9월11일(일) 오전10시
- 곳 : 치명자산
- 출발지 : 가톨릭센터
- 회비 : 3,000원

❖ 교도소 재소자 개학미사

- 때 : 9월7일(수) 오후1시30분
- * 후원회원과 함께

❖ 제8회 전주교구

- ME가족 큰 나눔잔치
- 때 : 9월11일(일) 오전9시
- 곳 : 윤호관

❖ 사람의 다리 윌레미사

- 때 : 9월5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전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성지순례

- 때 : 9월8일(목) 오전7시
- 곳 : 미리내

❖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창립 20주년 기념 강연회

- 일시 : 9월14일(수) 오후7시30분
- 장소 : 광주 가톨릭대학교 강당
- 기조강연 : 정양모 신부
- 토론 : 함세웅 신부, 이영섭 선생, 이완영 수녀, 정종휴 교수, 유철중 교수, 장용주 신부
- 사회 : 문규현 신부
- * 참가자를 위해 차 1대를 운행합니다. (출발시간 오후5시30분, 가톨릭센터)

❖ 축! 영명

- 13일(성요한크리스소스도모)
- 오성기 신부님

성소모임

❖ 샬트르성바로수녀회

- 때 : 9월4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3) 842-4132

❖ 거룩한 말씀회

- 때 : 9월4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84-2276

■ 순교성월에 권하는 책 ■

· 누이여 천국에서 만나자
노순자 지음
4,300원/성바로출판사
동정 부부 순교자 유 요한과 이 루갈다의 순교소설. "...저는 하느님께 유혹을 이겨낼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의 아낌과 믿음은 말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 순교자들의 신앙
박도식 지음
2,500원/성바로출판사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생애를 중심으로 본 간추린 한국전주교회사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물건 구매 요령

1. 판매 포장은 하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2.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자.
천으로 된 시장 바구니를 접어서 휴대하고 다니자.
여러 개의 비닐 봉투에 담아 물건을 사오는 모습은 지구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3. 다시 채워 쓰는 제품을 구입하자.
마요네즈, 케첩 등은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다. 유리병에 든 제품을 구입하여 다음번에는 내용물만 부어 쓰는 제품을 구입하자.
4.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자.
쓰고 난 후에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용기 선별 지혜를 갖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도록 궁리해 보자.
5.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자.
구입할 물건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절약하고 쓸데없는 구매도 막을 수 있다.
현명한 소비자는 자기가 사는 물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성바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슬라이드, CD 등
중앙성당 옆

☎ (0652)252-3398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도)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현대피부미용전문학원

미용과·연구반
피부관리·메이크업
분장(T.V, 연극)
유학, 해외연수

김금순(데레사)

☎ 86-2211, 254-3003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 일 생 수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체취하고 있는 천연 알칼리수

작은 예수회

☎(0652)225-4678

호출기 015-682-4678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 가격 : 大 20,000 中 18,000
小 15,000

· 구입문의 : (0658)43-0880~1
43-4236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랑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연중 제 23주일

◎ 9월은 순교자 성월 :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읍시다!

1. 반미사 안내
7일-중노 14반 전 10시
9일-중노 10반 전 10시
*반미사를 원하시는 반은 사무실에 신청
 2. 직원 소풍 : 8일, 저녁미사는 없고, 새벽미사 있습니다.
 3. 모임 : ①울뜨레아(4일 장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6일 어머니미사 후)
③세실리아회(9일 저녁미사 후)
④장우회(11일 장엄미사 후)
 4. 전입을 환영합니다.
· 박정열(스테파노)가정, 중노 16반 ☎82-2548
 5. 금주 청소 : 중노13, 15반
차주 청소 : 중노16, 17반
- 지난주 봉헌금 : 1,021,930원 □ 교무금 : 1,296,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연중 제23주일!(순교자 성월)

1. 꾸리아 : 9월4일(오늘) 오후 2시
 2. 사목회 : 9월6일(화) 저녁 9시
 3. 자모회 : 9월7일(수) 오전 10시30분
 4. 청년회 : 9월4일(오늘) 저녁미사 후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5. 울뜨레아 : 9월8일(목) 저녁 8시
 6. 성령 쇄신 묵상회 : 기간-9월26일(월)~10월6일(토) 오후 8시
장소-서학동 성당
회비-5천원
※ 신앙인으로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성전 보수 헌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 허태욱(마티아) 30만원, 18반 반원 일동 10만원, 양서운(수산나) 5만원.
 8.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 9월6일(화)부터 사무실에서 접수함.
◎ 축! 혼인 : 9월4일(오늘) 오전 11시30분
신랑-강병국(베네딕도) 신부-김은진
* 두 분의 혼인을 신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을 빕니다.
금주 전례 : 해설-이주철(야고브)
독서-남태관(아킬레오)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전병구(비오) 독서-강석주(베드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946,700원 □ 교무금 : 987,00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보좌신부 86-3032 수 너 원 86-3454 보좌신부 장 삼 호 사목회장 황 길 평

1. 대간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 후
 3. 구역분과회 : 6일(화) 오전 10시
 4. 울뜨레아 : 6일(화) 저녁미사 후
 5. 안나회, 자모회 : 8일(목) 오전 10시
 6. 여성분과회 : 10일(토) 오전 10시
 7. 요셉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8. 꾸리아 : 다음주일 오후 2시
 9. 청년회 :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10. 추석 합동 위령미사 :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11. ME 요구 행사 : 다음주일 10시에 율호관에서 있습니다.
 12. 사무장 휴가 : 9월5일~10일
 13. 95년도 성당 달력에 광고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14. 군산 조촌동 성당 신축을 위한 2차헌금 : 다음주일 (성당 건립을 위한 헌금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15. 성당 청소 : 10일-의덕의 거울Pr, 다윗의 탑Pr
 16. 금주 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유두석 부부
봉헌-박남수 가족
 17. 차주 전례 : 해설-황만규,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문금칠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582,100원 □ 교무금 : 1,271,6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병 희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이 완 재 F A X 82-6232 유 치 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행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금주 :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제속구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2. 베에따회 : 7일(수) 오전 11시
 3. 유아 세례 : 10일(토) 오후 3시
 4. 차주 :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5. 감사합니다 : ①시실헌금-20만원(곽순정 맘가라다)
②과교리시실헌금-200만원(빙덕베 디도)
 6. 빈첸시오 회원 모임 : 회합-매주 금요일 저녁 8시(제5회합설)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7. 성마리아 꼬미시움 간부 이동 : 회계-이우수(젬마) 박태연(말라) 수고하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935,220원

*** 상 관** 사 제 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십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9월은 순교자 성월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 회비 납부의 날
2. 성가대 정기총회 : 공식미사 후
3. 모임 :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 안나회, 자모회-다음주일
4. 지속적인 성체 조배 : 신청바람(1주간 1번 1시간)
5. 금주 청소 : 순교자의 모후Pr
6. 차주 청소 : 모든 성인의 모후Pr
7. 금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욱 ②이순자
봉헌-장만수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최원규, 독서①양주태 ②오귀남
봉헌-이기봉씨 부부

※ 용어 해설
수호성인 :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천사, 성인, 성녀 가운데 자기가 각별히 흠모하는 분의 이름(교명 또는 세례명)을 따면서 그 분을 자기 수호자로 모신다. 그밖에 성당이나 지방, 특별한 직업이나 일에 수호성인을 모시기도 한다.

□ 지난주 봉헌금 : 362,850원 □ 교무금 : 121,000원
□ 2차헌금 : 130,930원

*** 평회동** 사 제 관 85-6979 수 너 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 후 사 부 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갈 상 근

◎ 용머리 성당과 조촌동 성당 건축을 위한 2차헌금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접수 : 18일까지, 선명등을 위해 정성을 다 하여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2. 구역반회장 연수회 : 6일 전 10시30분, 냉담 현황 보고
 3. 사목회 상임위원회 : 8일 저녁 8시
 4. 물속회 첫 고백성사 : 6일 전 9시30분~ 직장인-저녁 7시
 5. 제8회 M·E 가족니눔 큰 잔치 : 11일 전 9시 율호관
 6. 교리교사 2차 피점 : 10일~11일 나바위 10일 후 2시 출발
 7. 교도소 재소자 개회미사 : 7일 후 1시30분 후원회원과 함께
 8. 다음주 미사 안내자 : 박항규(요한) 양대규(라파엘) 임병환(안토니오) 윤명숙(엘리사벳) 최창숙(가브리엘라)
 9. 용머리 성전 신축을 위한 바자회 : 9일~12일 식권판매-사무실, 신자분들의 많은 후원과 참석바랍니다.
 10. 나눔동 성전 신축을 위한 나나스끼(불외장아찌) 판매-2만원.
 11. 순창 성당 무공해 김치 고추장 판매 : 김치 1kg-4천원. 2.7kg-1만원. 고추장 2kg-1만5천원. 4kg-2만5천원.
 12. 회의 :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부녀회-6일 어머니미사 후, 세대회-9일 후 3시 성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성가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13. 인천 112차 M·E 방편을 환영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57,500원 □ 교무금 : 1,844,000원